

民衆詩와 파토스의 論理

—石松 金炯元 論—

吳 世 榮*

1. 序 論

石松 金炯元은 韓國의 현대시를 민주정치 의 이념에 의해서 해석하고자 했던 최초의 시인이다. 崔南善, 李光洙가 계몽주의 혹은 민족주의를 표방했을 때, 그는 민주주의라는 용어로서 문학을 규정지으려 했다. 문학이 한 시대의 현실을 반영하고 그 이념을 豫示하는 데 있다면, 민주주의의 실현을 이상으로 삼는 20세기에 그와 같은 文學論이 발표되었던 것은 일견 당연하다 하겠다. 그러나 이 아주 당연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石松에게 주목하는 것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문학의 여러 規範들을 소위 외적 접근(extrinsic approach)으로서 해명하고 있다는 점이다. 六堂이나 春園도 그 태도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문학의 공리적 기능에 국한된다. 그러나 石松은 문학의 공리성을 부인하면서도 문학의 제 규범들을 사회학적 차원에서 인식하고 있다 초창기 한국 문학에서 이러한 관점을 새로운 것이다.

둘째, 민중을 위한 詩의 개념이다. 그는 詩가 민중의 생활 감정에 맞는 소재를 선택하여 민중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民衆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비록 朱耀翰에 의해서 먼저 피력된 바 있다 하더라도¹⁾ 구체적인 정치이념과 결부시켜 처음 문학론으로 제시되었던 것은 아마도 石松에 의해서가 아니었던가 싶다. 뿐만 아니라 그의 민중 문학론은 그것이 日帝下 식

* 忠南大 教授(國文學專攻)

1) 朱耀翰이 詩集『아름다운 새벽』의 跋文을 통해서 民衆詩를 주장했던 것은 金 石松의 「民主文藝論」의 발표보다 1년이 빠른 1924년의 일이다.

민지적 상황이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를 지닌 것이기도 하다. 비록 추상적이긴 하지만 日帝에 대한 그의 간접적인 민족의식 혹은 저항의 표현이 아니었을까.

셋째는 그의 민주 文藝論이 자신에게 영향을 준 휘트먼(W. Whitman)의 그것처럼 20년대 낭만주의 한 양상이었다는 점이다. 白鐵의 견해²⁾와 달리 그의 문학이 20년대 한국적 낭만주의에 포괄되어야 하리라는 증거는 몇가지가 있다. 예컨대, 그의 感情主義文學, 理想主義的 世界觀, 民謠에 대한 관심, 民衆 禮讚 등이 그것이다. 石松의 民主文藝論은 朱耀翰, 金東煥 등과 더불어 한국 낭만주의의 한 흐름을 대표하고 있었다.

石松은 아직까지 자신의 詩集을 남겨놓지 못하였다. 그리고 그의 창작시들도 특별히 문제될 만한 수준을 보여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의 20年代 시를 이해함에 있어서 石松을 간과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2. 感情의 詩論

石松 문학론의 기초는 감정 옹호에 있었다. 그는 文學의 언어와 非文學의 언어를 구별하여 전자는 감정을 표현하는 언어이요, 후자는 理智를 표현한 언어임을 밝히고 단적으로 다음과 같이 결론 짓는다.

前者는 우리에게 感情의 振動만을 주고 後者는 우리에게 理智의 滿足을 주었다. 讀者에게 감동의 진동을 줌은 文學의 특질이다. 理智의 滿足을 줌은 幾何學——文學 이외의 모든 과학의 특질이다.……그러하다. 文學은 感情 그것이다. 藝術化시킨 感情이다. 讀者에게 감전의 작용을 주고자 하는 功利性質 보다도 唯美的 特質이 많다. 아니 純唯美的이다.³⁾

일견 리차즈(I.A Richards)의 정서적 용법으로서의 언어와 科學의 用法으

-
- 2) 白鐵은 石松을 “主潮 밖에선 諸傾向의 文學”에 포괄시켜 낭만주의 시인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朝鮮 新文學思潮史」首善社, 1948 pp.395-396
 - 3) 金石松, 「文學과 實生活과의 關係를 論하여 朝鮮 新文學 建設의 急務를 提唱함」『東亞日報』1920.4.21

로서의 언어⁴⁾를 연상케 하는 위의 견해는 그러나 石松이 그것을 단지 언어에 한정시키지 않고 문학의 본질, 나아가서는 세계 그 자체의 인식 태도에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닌다.

그에 의하면 문학은 인생의 반영이요 인생 그 자체로서, 문학이 없는 곳에 진정한 의미의 인생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 한다.⁵⁾ 그렇다면, 인생이란 무엇일까, 그는 인생이 감정 이외엔 아무것도 아님을 강조하고 있다. 인생의 전 생활은 문학 생활과, 實生活로 나뉘어질 수 있으며, 문학 생활은 일면에서 實生活을 반영하고 또 동시에 實生活에 필요한 滋養을 공급하는데 본질을 지닌다고 한다. 그런데 이 實生活이 바로 感情의 표현, 혹은 감정의 지배에 의해서만 존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비유컨대, 人間을 機關이라 한다면 감정은 發動機에, 두개의 軸은 각각 理智와 意思에 해당하며 따라서 理智, 思考, 行動은 모두 감정에 종속된 분자들이다.⁶⁾ 가령 늙은이와 청년을 예로 든다면, 前者는 감정이라는 火力이 메달라 理智와 意思라는 기름에 의해서 근근히 운전해 가는 기관과 같은 존재임에 반해 後者는 비록 “感情의 火力이 太强하여 기관이 파열되는 경우는 있어도 그 生命이 적극적이요, 진보적인 존재⁷⁾라는 것이다. 드디어 그는 감정이야 말로 生命 그 자체라는 논리에 이른다.

나는 이제 크게 부르짖노니, 감정은 인생의 血液이요, 人生의 生命이요, 實生活을 지배하는 원동력이다. 感情이 죽으면, 人生의 生活은 휴지되고, 전인류의 生命은 단절되는 것이다.⁸⁾

나아가서 그는 인류의 “歷史 그 자체도 感情의 目錄”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찬란한 歷史의 페이지를 꾸미는 사실은 가장 우아하고, 가장 열렬한 감정의 발자취임”도 아울러 밝히고 있다.⁹⁾ 이렇게 인생과 역사 그리고 세계의 의미를 감정으로 이해한 石松이 그것의 반영인 문학의 본질 역시 감정으로

4) I.A. Richards: *Principles of Literary Criticism*, Routledge 1964, Chap 34

「The two use of language」

5) 金石松, op. cit. 1920. 4. 22

6) Ibid. 1920. 4. 22

7) Ibid. 1920. 4. 22

8) Ibid. 1920. 4. 22

9) Ibid. 1920. 4. 22

로 인식했던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한가지 의문에 부딪힌다. 인생이란 과연 감정만의 혹은 감정에 지배되는 존재인가 하는 점이다. 왜냐하면, 심리학적으로 볼 때 인간은 감정의 본능을 억압할 수 있는 理性, 혹은 超自我(super ego)를 지닌 존재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하등한 동물일수록 감정의 본능에 충실하고 이성의 작용이 부재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렇다면, 보다 감정에 충실한 동물적 생활이야말로 文學의 生活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문학이 인생의 반영이라는 그의 견해는 소위 模倣說(Mimesis)의 입장에 서는 것 같다. 즉 인생, 역사, 세계, 달리 말해 自然의 實體가 감정인 까닭으로 문학 역시 감정의 표현이 된다는 말이다. 그러나 아리스토텔레스의 模倣說이 自然의 보편성, 또는 아이도스(Eidos)를 대상으로 하며¹⁰⁾ 파토스적인 것과 로고스적인 것——아니 오히려 로고스에 가까운 것의 조화에 있음¹¹⁾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따라서 감정만이 문학의 본질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는다. “感受性的의 統合(Unified sensibility)”¹²⁾이라는 말로 현대에 와서 요약된 문학적 전통은 바로 이를 설명해 주고 있다.

소박하게 인간의 생명을 감정으로 이해한 石松은 이제 인간의 가치가 강한 감정의 획득에 있음을 믿는다. 즉 인간의 가치는 삶(生命)의 확장에 있으며 生命의 확장이란 다름 아닌 강한 감정의 소유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人生의 生活은 堅實한 感情의 舞蹈이다. 위대한 인물이란, 自己의 生의 勢力을 한껏 擴張한 인물이다. 따라서 宏大한 感情의 결정체이다.¹³⁾

그러므로 감정의 표현인 문학은 인간에게 보다 강한 감정을 부여해 주는 데 그 임무가 있다고 한다.

石炭이 盛히 타오르는 暖爐中에 다시 더 石炭을 넣음과 같이 人類가 가진 感情의 火爐에 다시 더 感情의 불을 加勢하여 주는 것이 문학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¹⁴⁾

10) S.H. Butcher: *Aristotle's Theory of Poetry and Fine Art*, New York, 1894. chap 2-3

11) Northrop Frye: *Anatomy of Critic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pp.82-84

12) T.S Eliot: *Selected Essays*, London, 1950 p.287

13) 金石松, op. cit. 1920. 4. 22

14) Ibid. 1920. 4. 22

이에 이르러 우리는 石松이 同時代의 시인 岸曙가 저질렀던 과오처럼¹⁵⁾文學을 生物學的 차원——生의 本能에 환원시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石松의 오류는 文學을 一面적으로 고찰하는 데서 비롯하고 있었다. 그의 소박한 견해와는 달리 文學은 감정만으로 구성된 단일 구조가 아니라 사상이나 철학 기타 제 이질적인 요소가 형성해 내는 복합체이며, 또한 단지 生命의 표현만이 아니라 生命을 넘어선 超越 그 자체인 것이다.

그러나 그의 감정 文學론은 그 관점에서 빚어지는 논리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주목되는 국면이 있다.

① 文學의 自律性 옹호——비감정적인 요소 예컨대 사상, 교훈, 도덕성 등을 엄격히 배제한 石松의 文學론적 입장에서 文學의 公理성이 부정되는 것은 당연하다. 石松은 文學이 실생활에 유용하다고 주장했으나, 그 유용성은 “純唯美的”인 측면 즉 ‘인류에게 감정의 불을 배분함으로써 生活에 層—層 活力을 加하는’¹⁶⁾데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의 배분도 文學 자체에 그런 기능이 있는 것은 아니며 다만 독자 스스로가 求하는 데서 얻어진 것이라고 한다.

우리는 그 불의 열도를 그 빛의 광선을 제 각각 자기의 요구대로, 力量대로 취할 수 있고 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文學이 스스로 우리에게 그것을 進程하지는 아니한다.……곧 독자가 스스로 文學에서 自己의 구하고 싶은 바를 구하는 것이다.¹⁷⁾

文學의 독자성에 대한 그의 이같은 인식은 唯美的 태도의 결과에서 오는 것이긴 하지만 그 前代의 계몽주의 文學관에서 진일보한 浪漫主義文學의 한 승리라고 생각된다.

② 浪漫的 世界 認識——石松의 感情 文學論은 유치하나마 낭만주의의 한 본질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일반적으로 낭만주의가 합리적 理性으로는 불가능한 자연의 實體 인식에 그 본질이 있다고 한다면 감정적인 요소 그것이 지닌 不合理性, 力動性 및 환상적 특질은 낭만주의의 주

15) 拙稿, 「20年代 文學의 한 地平」『世界의 文學』1978. 봄호

16) 金石松, op. cit 1920. 4. 22

17) Ibid. 1920. 4. 22

요한 요소의 하나가 된다.¹⁸⁾ 실제로 歷史的 낭만주의가 계몽주의의 반동에 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그것은 이성 존중과 합리적 세계관에 대한 거부를 의미하는 것이며 따라서 세계의 실체를 不合理한 感情을 통해 이해하려 했던 石松의 문학관은 어떤 측면에서 낭만주의의 입장과 유사하다고 보겠다. 즉 世界 그 자체를 감정만의 것으로 본 그의 견해에는 부당한 바 있지만, 그러나 세계 인식의 수단으로서 감정을 옹호했던 것은 낭만주의의 입장에 가까운 것이다.

③ 民衆文學論과의 연관성——사상 및 교훈성을 배제하여 문학의 공리적 기능을 부정한 石松이 민중을 위한 文學을 제창했던 것은 일견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石松의 민중 문학론은 현실적인 문학의 行動性——社會的 기능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후술될 터이지만 그의 민중 문학론은 어떤 이념적 실천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문학의 제 규범들——형식, 소재, 언어 感性들이 일반 민중의 공감 영역에 기초를 두어야 된다는 뜻이었다. 그러면 이러한 그의 民衆文學論이 어떻게 감정 옹호론에 관련을 맺는 것일까.

文學은 감정을 예술화시킨 것이요, 實生活은 感情의 活動이다. 문학은 감정의 태양임으로 오직 자신의 光線을 放射함이 天職이요, 生의 實生活을 위하여 그의 光線을 輿함은 아니나……¹⁹⁾

太陽이 森羅萬象을 고루 비취듯이 博大한 心境을 가진 詩人……²⁰⁾

종래의 귀족 문학에선 문학이 한 특정한 계급에만 몰두하였다고 본 石松은 문학을 감정의 태양으로 비유시켜 문학의 본질이 太陽의 조명처럼 차등 없이 모든 인류에게 그 지닌 바 생명의 감정을 골고루 배분하는 데 있는 것이라고 역설한다. 그리고 石松이 지적한 이「平等의 문학 정신」이 바로 그의 民衆文學의 핵심이었던 것이다. 여기서 그의 감정 옹호론은 그의 소위 민주 문예론과 일치한다. 왜냐하면 그의 견해를 빌릴 때, 民主主義도 “宇宙의 구석구석에 그 光明을 고루 비추어 주는 太陽과 같은 존재”로서 世界主義

18) Hermann, A Korff: *Begriffsbestimmung der Romantik*, hg. von Helmut Prang pp.195-215. 「Das Wesen der Romantik」

19) 金石松, op. cit. 1920. 4. 22

20) 金石松, 「民主文藝小論」, 『生長』第五號, 1925. 5

양상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²¹⁾

3. 民主文藝論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石松의 民主文藝論은 어떤 특정한 이념을 전달하려는 공리주의적 문학론에서 출발했던 것은 아니다. 더우기 감정만이 文學의 본질이라 생각했던 그로서는 공리적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그의 民主文藝論은 文學 外的 狀況(政治的, 社會的)에 대한 실천적 참여와는 거리가 먼, 文學의 內的 규범에 한정되고 있다. 즉 그는 현대 문학이 지닌 여러 내적 필연성을 민주주의 이념에서 발견해 내는 것으로 만족한다.

그는 民主主義 이념이 절대 자유, 平等 및 抱擁主義에 있다는 前提 아래서 종래 귀족주의 문학과 다른 제 특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文藝上으로 옮겨 말하자면 形式과 題材를 구속 없이 선택하고 개성의 솔직한 표현을 위주하며, 따라서 각 개인의 생활을 그대로 승인하여 詩人의 입을 빌어 萬人으로 하여금 發言할 수 있는 自由를 許用하는 점에 民主文藝의 참된 使命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²²⁾

즉 첫째, 形式의 自由.

둘째, 題材의 自由.

셋째, 개성의 표현.

넷째, 人生과 世界를 여러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것.

다섯째, 한 특정한 계층이 아니라, 萬人에게 공감을 줄 것.

여섯째, 따라서 藝術上의 주인공도 귀족이나 王侯將相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과 같은 평범한 인물일 것.

일곱째, 萬人의 발언과 民衆的 情感의 표현.

여덟째, 어떤 특별한 이념에 종속되는 것이 아닌 제 이념, 主義의 포용 등이다.²³⁾

21) Ibid.

22) Ibid.

23) 金石松, 「民主文藝論」을 요약한 것임.

이러한 石松의 文學論은 지금에 와서 아주 당연한 것으로, 결코 새롭다고 생각되지 않으며 더우기 20년대 詩에서 이미 실천되고 있었던 것들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는 다만 그가 그것을 자각 있는 문학론으로 공표하였다는 점, 그리고 民主政治의 理念을 文學에 도입하였다는 점등에서 의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 몇가지로 제시된 石松의 民主文藝論은 결국 다음과 같은 그의 文學的 이념의 구체적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民衆의 文學, ②偶像의 파괴, ③휴우머니즘과 世界主義, ④휘트먼의 영향 등이다.

(1) 民衆의 文學

石松의 文學論에는 民衆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는다. 다만 후세 문학사에서 石松을 民衆的 詩人이라고 규정했을 따름이다.²⁴⁾ 그러나 石松 자신의 표현, 예컨대 “차등없는 인류의 文學” 혹은 “萬人의 文學”이라는 개념은 그대로 “民衆의 文學”²⁵⁾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생각된다. 이러한 단정은 그의 萬人을 위한 文學이, 귀족 文學에 대립된다는 자신의 보충 설명에 의해서도 짐작되는 터이다. 그렇다면 그의 “萬人” 즉 民衆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선 우리는 그것이 계급 의식과는 무관하다는 사실을 지적할 수 있겠다. 石松은 그 당대의 유행 사조였던 계급 문학론엔 상당히 회의적이었던 것 같다. 언뜻, 그 제목에서 이데올로기를 형상화하지 않았나 오해를 주는 <無產者의 절규>와 같은 시들이 몇편 쓰여졌던 것이 사실이나, 이시들도 내용에 있어선 전혀 맑시즘과 거리가 멀다.

나는 無產者이다.

아무것도 갈지 못한

.....

共產主義도

社會主義도

民主主義도

아, 나는 願치 않는다.

<無產者의 절규>

24) 趙演玟, 『韓國 現代文學史』 成文閣, 1973. p.456. 金容復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Leaves of Grass의 影響」 등

25) 金石松, op. cit.

윗 詩는 그 제목과 달리, 휴우머니즘 내지 아나키즘을 표방하고 있다. 그의 산문 역시, 일면에서 계급주의를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서도 이내 이를 부정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예컨대 「開闢」 제56號(1925. 2. 1)의 특집 〈階級文學是非論〉에 기고한 石松의 글은 이를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계급이 없는 사람에게 계급이 생기고 時間, 空間을 超越하여 萬人의 階級에 공간을 주어야 할 文藝에까지도 계급은 생기고 말았다. 이미 생긴 계급이라 싸우는 것도 마땅한 일이요 싸우지 아니하여도 아니될 일이지만 나는 이제 한가지 重大한 疑心을 가지지 아니할 수 없다. 계급을 위하여 싸우느냐 文藝를 위하여 싸우느냐 다시 말하면, 階級 이익만을 위하여 싸우느냐 全 人類의 生存을 위하여 싸우느냐 나는 스스로 이 의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얻기 위하여 방금 읊은 애를 쓰는 중이요 階級戰보다도 疑問戰에 머리를 앓는 중이다.²⁶⁾

그 외에도 비슷한 견해는 몇 군데서 피력된다. 자신의 傳記의 사실에서도 짐작되는 터이지만, 계급 문학에 대한 그의 이와같은 부정적 태도는 모든 主義, 思潮를 관용스럽게 포괄하는 포용정신이 民主主義의 本質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이념과, 공리적 기능을 부정했던 그의 문학관으로서는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石松에 있어서 民衆이란 문자 그대로 萬人 즉 平凡속에 위대함이 존재하는 生活人을 가리킨다. 달리 말하자면 그것은 政治的인 의미의 市民(citizen)도, 國家的 意味의 國民도, 階級的 意味의 勞農民(proletariat)도, 혹은 社會 構成員으로서의 公衆(public)이나 公民도 아닌, 오히려 이 모두를 포괄하는 개념, 즉 휘트먼의 소위 common people이나 folk에 해당되는 말이다. 따라서 石松의 말을 빌리면 民衆은 “被治者, 治者, 强者, 弱者, 男女, 老幼, 色別을 勿論하고 모두 均등한 기회에 生長할 수 있는 사람들”²⁷⁾로 요약된다. 그러나 여기에도 원칙은 있는데 그것은 ①階級主義와 ②貴族主義의 거부 ③平凡 속에서의 진실, 혹은 위대함의 추구이다.

民主 哲學은 가장 평범한 사물, 가장 卑近한 사건일지라도 그 本質을 나타내어서 그 眞體를 설명하는 것이다. 太陽이 森羅萬象을 고루 비추듯이 博大한 心境과 洞察 力을 가진 詩人일진대, 사람이던지, 自然이던지, 무엇이던지, 詩 아닐 것이 어디

26) 金石松, 「階級을 爲함이나 文藝를 爲함이나?」 『開闢』 총 56號, 1925. 2. 1

27) 金石松, 「民主文藝小論」 『生長』 第5號, 1925. 5

있으리요 그리하여 그들(民主藝術家)은 事物의 精髓를 透視하기에 努力할 것이다.²⁸⁾

石松은 또한 휘트먼의 위대성을 지적하면서 그의 平民에 대한 애정을 높이 산 바 있다.²⁹⁾

石松의 萬人(民衆)에 대한 사랑과 관심은 그 작품의 대상이 되는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에 의해서 설명된다. 家族(〈離鄉〉), 革命家(〈죽음의 美〉), 木手(〈오棺짜는 木手야〉), 無產者(〈無產者의 절규〉), 나뭇꾼(〈솔방울 따는 아낙네〉), 장사꾼(〈부조리 파는 사람〉), 아기(〈젓먹이의 자는 얼굴〉), 노인(〈낙엽 굽는 노인〉), 囚人(〈囚人의 生活〉), 病者(〈오오 나는 病者다〉), 의사(〈病兒〉), 굴뚝 소제부(〈새까만 사람〉), 農民(〈지심울 매이자〉), 창녀(〈웃을 파는 계집〉), 등은 그의 民衆을 위한 詩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이지만, 그 외에도 그가 민중들의 소산인 民謠에 가치를 부여하고³⁰⁾ 그 자신 민요시를 썼던 사실도³¹⁾ 이를 증명하고 있다.

石松은 그의 民衆文學論을 구체적인 作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노래하고 있다.

나는 돌이다.

그러나 山에 있는 바위도 아니고,
물에 있는 暗礁도 아니다.

우리집은 모래 강변이고

나의 이름은 작은 돌이라 한다.

〈작은 돌의 노래〉

그대들의 次序대로 記錄하면

官吏, 富者, 有識階級

商人, 小作人 勞動者

28) Ibid

29) 金石松, 「草葉集에서」『開闢』總25號, 1922. 7

30) 金石松, 「文學와 實生活의 關係를 論하여 朝鮮新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함」『東亞日報』1920. 4. 23. “과연 우리에게는 旱天에 太苗같은 民謠 몇귀를 除한 외에는 진정한 우리 文學이 없었다.”

31) 〈큰물뒤에〉, 〈남기운 香내〉, 〈白頰鳥〉, 〈아이들의 노래〉, 〈그리운 江南〉 등은 民謠體詩이다. 詩作 노트에서 石松은 스스로 자신이 民謠詩를 試作해 본 것임을 밝히고 있으며(〈白頰鳥〉) 〈그리운 江南〉은 作曲되어 널리 애창되었던 노래이다. 또한 그는 流行 歌謠에도 관심이 깊어 「歌謠協會」라는 것을 만들어 新歌謠를 지어 보급코자 했다. 「『그리운 江南』은 나의 愛人 그를 作詞 하던 時節의 遺憶」『朝光』第29號, 1938. 3. 1

나의 마음대로 記錄하면

개인 늬, 자는 늬, 일하는 늬, 노는 늬,

모든 階級의 친구들이여,

<햇빛 못보는 사람들>

(2) 휴우머니즘과 世界主義

石松의 民主文藝論은 휴우머니즘과 世界主義를 바탕으로 하여 이루어진다. 즉 그의 萬人을 위한 詩, 혹은 民衆 文學論을 받들고 있는 이념은 휴우머니즘이다. 나는 앞서 그의 民衆 文學論이 “平凡 속에서의 眞實”³²⁾, 또는 위대함의 추구에 있다는 사실을 피력한 바 있는데 이것은 바로 휴우머니즘의 다른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이곳에 비로소 人類 共同의 生存繁榮을 목표삼은 새로운 운동은 용감한 걸음을 걸기 시작하였다.³³⁾

民主主義는 人生的 永遠한 方針의 確立을 부르짖고 萬人의 幸福을 구하는 사람으로서나, 藝術家로서나 가장 새롭고 진전한 사상이다.³⁴⁾

그러나 他人이 없는 곳에 自己인들 어떻게 있을 수 있으리요, 自己는 결국 他人의 異稱이요, 他人은 畢竟 自己의 別名이 아닐까.³⁵⁾

그렇다 自己——個體의 生命은 社會——全體의 生命과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이다. 의식적으로 자기를 부인할 때에는 個體의 生命으로 하여금 全體의 生命에 加入하는 가장 거룩한 순간의 행위인 것이다.³⁶⁾

이상의 진술들은 石松의 문학 사상이 萬民 平等, 自己 희생, 및 人類 共榮의 정신 등에서 발원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는 한편, 그 당대 널리 퍼져 있던 소위 四海 同胞主義(All men's brothers)에 영향 받았음을 짐작케 한다. 萬人을 위한 文學論은 바로 이러한 그의 思想의 구체적 실천이었다.

그리고 나는 다만,

「人間」이란 財産만을

眞實한 의미의 「人間」을

32) 金石松, 「民主文藝小論」『生長』총5號, 1925. 5

33) Ibid.

34) Ibid.

35) 金石松, 「自己. 妥協. 他人」, 『生長』總1號, 1925. 1. 1

36) Ibid

要求한다. 절규한다.

그리고 다음에

「人間」의 「權理」를

나의 손에 있게 하라고

나 스스로 나(人間)를

인식하고 처분할 만한

.....

〈無產者의 절규〉

따라서 石松은 그 스스로 平凡한 人物(“그저 凡人으로 살기 외다/저 대로 제 마음대로 제 벌로/저대로 살다가 가겠나이다” 詩 〈나의 所願〉)이 되기를 바랐으며 民衆 文學의 실체를 “평범하고 卑近”³⁷⁾한 것의 內面에서 진실을 발견해 내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의 시의 대상이 대부분 억압되고 가난한 자, 弱者, 버림받은 者들이었음이 이를 증명한다.

한편 石松의 휴우머니즘은 ‘人類의 진정한 발달이 한 地方이나 한 種族의 그것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世界主義의 양상을 띄게 되며, 더욱 나아가서 人類를 벗어나 自然物에 대한 애정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 여기서 그의 소위 “森羅萬象을 골고루 비취주는 太陽(文學)”³⁸⁾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즉 그의 휴우머니즘은 인류의 평범성(民衆)뿐만 아니라, 自然의 平凡性까지도 포괄하는 개념이다. “民主文藝는 世界主義 내지 人類主義的 文藝다”, 혹은 “사람이던지 자연이던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가장 平凡한 事物 속에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民主哲學이다”는 그의 진술이³⁹⁾ 이를 지적한다.

① 까치 두마리가

.....

큰 죄에 범한 듯한 나는

사랑으로 내려가서

까치의 간 곳을 살렸으나

다시는 그림자도 없다.

〈눈보라 치는 아침에〉

37) 金石松, 「民主文藝小論」, 『生長』總5號, 1925

38) Ibid.

39) Ibid.

보통학교 일년생의 어린 아우가
어디선지 참새 한마리를 잡아 왔다.

.....

두마리가 종일토록 맹세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돌아와 깃들인 것을
「아 잡아서 어찌하오」

〈사소한 돌발 사건〉

- ② 아아, 장엄한 죽음이어
압박을 받은 무리의 비장한 부르짖음이어,
그의 침묵의 절규는 전 세계에 반항하고

.....

〈죽음의 美〉

인용시 ①은 까마귀와 참새 등 자연물에 대한 그의 애정을 표현하고 있으며, ②는 아일랜드 독립 운동의 지도자 맥스 위니의 죽음을 소재로 하여 인류의 자유와 평등을 옹호하는 그의 세계주의 이상이 관념적으로 그려져 있다.

(3) 偶像의 파괴

스스로 우상 파괴주의자로 자처했던⁴⁰⁾ 石松은 民主 文藝가 일면에서 抱擁의 문학인 반면, 다른 일면에선 反抗의 문학임도 밝히고 있다. 데모크라시의 이상을 위하여 해로운 分子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反抗해야 된다는 것이다.

· 데모크라시는 絶對의 抱擁인 동시에 또한 絶對의 反抗이다. 데모크라시의 理想을 위하여 해로운 분자는 언제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反抗을 받을 것이요 이와같은 反抗은 마침내 抱擁의 理想을 실현하는 계급이 될 것이다.⁴¹⁾

그의 이와같은 견해는 詩 作品을 통해서도 공공연히 주장되고 있다.

물아 흘러가거라, 솔아 누워 있거라
언덕아 쉬지 말고 무너져라,
사람아 두려워할 것은 아니다.
革命은 生長의 代名詞이다.

〈큰물 뒤에〉

人生은 創造의 動物이다

40) 詩 〈그들은 幸福이다〉의 副題는 「偶像 破壞論者의 悲哀」이다.

41) 金石松, 「民主文藝小論」, 『生長』 總5號, 1925.5

個性의 완전한 표현,
 감정의 충분한 발달,
 여기에 창조가 있을지요.
 비로소 신세계는 전개된다.

.....

性格 破産의 宣告를 받은 人生은
 일어날 것이다. 革命의 蠐螬을 들고.

〈離鄉〉

“革命”이라는 말로 공언된 이 反抗은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당대의 植民地的 삶을 전제할 때, 우리는 그것이 당연하게, 日帝 전 제정치라고 대답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日帝 植民 統治야말로 民主主義 理念에 逆行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대의 대부분의 시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現實과 歷史를 교묘하게 추상해 버린 石松은 소위 자신의 民主 文藝가 싸워야 할 대상으로, 貴族 文學과 舊道德을 들고 있다. 즉 그의 觀念的 휴우머니즘이 무너뜨려야 될 偶像은 정치적 이데오르기가 거세된 의미의 전통적 질서——도덕, 윤리, 가치관 등——이었다. 여기서 우리는 현실을 회피하는 우상 파괴자의 모순을 발견한다. 그의 民主 文藝論은 앞장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어디까지나 文學의 內的 규범에 한정되고 있었다.

神聖한 人間性을 파괴하는
 滅亡의 씨를 뿌리는 舊道德
 아아 나는 진정 저주한다.

〈離鄉〉

마침내 傳統의 隕命日이
 人類의 눈 앞에 올 때에
 아! 그들은 어찌할른지

〈傳統의 隕命日〉

道德과 倫理, 哲學,
 모든 울개미로
 우리의 목을 얽는
 眞理의 冒瀆犯,

〈未來를 위하여〉

이상 몇 편의 인용 시들은 民主 文藝가 싸워야 될 대상이 舊世代의 질서임을 분명히 해주고 있다. 石松의 自由 戀愛論, 즉 性 解放論도 여기서 民主 文

藝論과 관련을 맺는다. 왜냐하면 性的 解放이야말로 그에 있어서는 새로운 時代의 도덕적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그는 性的 解放을 통해 구세대의 질서, 도덕적 이상을 무너뜨리려 한다.

어찌하였던지, 이른바 新道德의 基調가 性的 解放, 곧 戀愛의 肯定에 在함을 안 우리는——더우기 戀愛는 人類의 向上 發展의 원동력임을 아는 나는——이것이 전부 합리한 일이라면——戀愛의 자유를 위하여, 性的 關係의 革命을 위하여 모든 비난과 공박으로 더불어 血戰이라도 사양치 아니할 것이요, 끝끝내 이를 위하여 全力을 바치어도 부끄러움이 조금도 없을 것이다. 性的 革命의 軍卒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⁴²⁾

20년대의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石松에 있어서도 自由 戀愛는 그의 문학적 이상을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이 된다.

石松의 시에 압도적으로 등장하는 이미지러는 죽음이다. 그의 시는 대체로 죽음과 관련된 “낙엽”, “밤”, “가을”, “겨울”, “묘지”, “노인”, “歲暮”, “棺”, “洪水”, “白骨”, “病者”등의 이미지를 원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詩의 題目을 일변하는 데서도 여실히 증명된다. <죽음의 美>, <墓地 1, 2>, <오 棺짜는 木浮야>, <傳統의 隕命日>, <불은 꺼졌다>, <무서운 밤>, <生命의 색은 내>, <낙엽>, <傷者의 呻吟>, <白骨의 亂舞>, <어두운 숲속에서>등은 눈에 띄는대로 골라 본 것들인데, 이들은 동시에 새로운 生命의 탄생을 뜻하는 <새벽>, <元旦>, <아기>, <복조리 파는 사람>, <굴뚝 소제부>, <봄>등의 이미지러와 대립되는 의미강을 형성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해서 石松의 시세계는 죽음과 탄생의 두 이미지 軸에 의하여 회전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그의 시에서 죽음과 탄생은 무엇인가. 偶像 파괴자인 石松에게 죽음이란 바로 구세대의 도덕을, 탄생이란 그의 性的 解放論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시대의 윤리를 뜻한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詩를 한 두편만 인용해 보아도——그의 詩는 진술이 직설적이고 관념적이기 때문에——명백해진다.

그리고 그들은

「某年, 某月, 某日, 沒

42) 金石松, 「性的 關係의 一考察(下)」『啓明』總2號, 1921. 6

故某之墓]라 하는
 墓碑 하나를 오직
 現實에 남기어 둔다.
 이 墓碑야 말로
 傳統이라는 限 없이 긴
 連鎖의 한 고리이다.
 人類 歷史의 成分이다.

〈傳統의 限命日〉

네 이 妖魔스런 도깨비들이 물러가거라
 ……………

白骨의 무리는, 도깨비 메들은
 세상이나 만난듯이 미쳐 날 댈 뉘다.
 흠인 뻘인지 알 수도 없는 四書三經이 白骨
 고사만 안 지내도 탈을 내이는 兪 주大監!

〈白骨의 亂舞〉

아! 새날 새 사람!
 새 生命의 춤티가 열리려 하는
 아 거룩한 새벽 네시.

〈아 지금은 새벽 네시〉

인용시들은 죽음과 탄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다
 가령 詩 〈죽음의 美〉같은 경우는 이러한 石松의 의도를 아주 잘 표명해 주
 고 있는데, 詩인이 죽음을 슬픔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讚美의 대상으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그 죽음이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탄생시키리라는 것을
 믿기 때문이다. 石松의 民主文藝論은 관념화된 후우머니즘과, 전통의 파괴
 를 그의 詩의 意味 構造인 죽음과 탄생의 이미지러로 수렴시킨다.

(4) 휘트먼의 영향

石松의 民主文藝論이 휘트먼에게서 크게 영향받았다는 사실은 本人 자신
 의 문학 행적과 金容稷 教授의 所論을⁴³⁾ 통해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따라
 서 나는 金教授에 의해 언급되지 않은 부분에 한하여 그 영향관계를 고찰해
 보려 한다. 우선 金教授가 지적한 石松에 있어서 휘트먼의 영향을 요약한다
 면 대략 다음과 같다.⁴⁴⁾

첫째 文學論上에서

① 과거의 보수적 귀족문학에 대한 공격

43) 金容稷, 『Leaves of grass의 影響』,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1974

44) Ibid, 요약임

- ② 形式과 제재의 자유, 및 삼라만상을 동등하게 詩의 대상으로 삼은 것
- ③ 石松의 포용과 反抗의 정신
- ④ 石松의 코스모포리타니즘

물째, 作品上으로

- ① 인습과 전통에 대한 반항
- ② 형식적 구속의 철폐
- ③ 절대 포용의 이념
- ④ 인간과 그 未來에 대한 확고한 신념 등이다.

그러나 이상 金教授가 지적한 사항 이외에도 휘트먼과 비견되는 石松의 文學的 特質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自由 戀愛 및 性解放.

性에 대한 石松의 견해는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휘트먼 역시 性解放은 새로운 도덕의 기초라 생각하여 이를 주장하였다.⁴⁵⁾

- ② 平民이 지닌 위대성 옹호

石松이 누누히 갈파한 이 명제도 다음과 같은 휘트먼의 진술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美合衆國의 위대성은 그것의 行政權이나, 국회의원이나, 창조자나, 기자나, 목사나, 작가나, 大使나, 교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民衆(common people)에게 있다.⁴⁶⁾

- ③ 生命의 찬양과 아기의 詩化.

石松의 詩가 죽음과 탄생(生命)의 의미 구조 위에서 쓰여졌다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 있다. 그리고 그의 感情文學論 역시 궁극적으로 生命力伸張에 목적이 있음도 살펴보았다. 그에게 있어서 (과거 인습의) 죽음은 새로운 질서의 탄생을 의미한다. 石松은 또한 〈요람〉, 〈아이들의 노래〉에서 아이를, 〈참새〉, 〈生長讚美〉, 〈새벽 네시〉 등에서 生命의 고귀함을 노래하고 있다. 특히 그 자신이 간행한 文藝誌의 이름이 「生長」이었던 것은 위의 제

45) Walt Whitman, *Leaves of Grass and selected prose*, Introduction by Sculley Bradley, Holt Rinehart p. xii, 기타 구체적인 作品의 예로서 〈Children of Adam〉 〈Calamus〉등을 열거할 수 있다.

46) Ibid p.453

사실을 시사해 준다. 그런데 生命의 무한한 진보와 존엄성을 믿고 그것의 상징인 아기를 詩化했던 시인도 휘트먼이었다.⁴⁷⁾ 휘트먼의 문학 사상이 독일 관념주의, 특히 헤겔 철학과 헤겔의 영향을 입은 바 있는 에머슨의 進歩的 自然觀에 깊이 연루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는데, 따라서 휘트먼이 사회 진보 및 민주정치의 발현을 자연이 지닌 힘(energetic force)⁴⁸⁾으로 설명했던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이 “자연이 지닌 힘” 즉 生命力の 경배로부터 그는 원시주의(Primitivism)와 性解放을 지향하고 아기와 향토적 정서를 찬양하게 되는 것이다.⁴⁹⁾ 즉 아기가 지닌 生命力は 그대로 민주정치를 가능케 만들어주는 민중의 숨은 힘과 같은 것이다.⁵⁰⁾ 石松이 과연 에머슨류의 자연관을 가지고 있었던가는 아직 알 수 없는 일이지만, 소박하나마 生命力에 대한 그의 관심은 휘트먼의 그것과 흡사하다.

④ 자기 희생의 정신 및 휴머니즘

휘트먼은 민주주의를 자연의 질서로 인식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보편적 사실의 법칙이다.……그것의 본질은 이 세계를 둘러싼 宇宙의 正義에서 확산되는 사랑이다.⁵¹⁾

나는 앞서 石松의 휴머니즘이 자기 희생을 통한 전체에의 合一에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⑤ 個人과 全體의 調和

石松은 民主主義 본질이 個人의 존중에 있음을 강조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個人과 全體의 不可分性도 중요하다는 점도 역설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있음으로서 비로소 千萬의 수가 있음과 같이 個體가 있음으로 비로소 전체가 성립되리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自己 個體의 生命은 社會 전체의 生命과 조금도 다름이 없을 것이다.⁵²⁾

石松의 이러한 견해는 휘트먼의 다음과 같은 진술에 유사하다.

47) Ibid. p.463

48) Ibid p. xi

49) Ibid p. xii

50) Ibid p.465

51) Ibid pxi

52) 金石松, 「自己·妥協·他人」『生長』總1號, 1925. 1.

個人은 그가 위대한 국가를 만드는 속성을 지닐 때, 국가와 마찬가지로 위대하다. 광대하고 가치 있는 영혼과 영광스러운 국가는 詩人(個人)으로 더불어 각각 전체의 절반을 분담한다.⁵³⁾

石松의 文學論은 이상과 같이 휘트먼의 그것에 유사점을 지니면서도 상당히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있음도 부인할 수 없다. 예컨대 국민주의의 결여(국가 의식, 국토 예찬, 국민적 긍지 등의 결여), 종교적 경건심과 자연 철학의 부재, 프리미티비즘(primitivism)에의 무관심, 행동이 거세된 관념적 민주 이념 등이 그것이다. 특히 그가 國民主義에 입각하여 적극적으로 현실에 뛰어들지 못했던 것은 그의 民主主義 이념이 한낱 虛構 그것이었음을 드러내고 있다. 당대의 다른 낭만주의 시인들처럼, 그도 역시 현실과 대결하기 보다는 회피하는 방법을 선택했던 것이다. 그의 民主文藝論이 비록 휘트먼의 영향을 깊게 받아 형성되었다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휘트먼의 그것과 구별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4. 民衆詩의 限界

石松이 그의 民主文藝論을 통해 언필칭 “반항”과 “革命”을 주장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정치적 혹은 社會的 의미가 아니었음은 앞에서 살펴본 그대로이다. 따라서 그의 文學은 당대 조국 현실에 대하여 별다른 언급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소극적 표현이 발견될 뿐이다.

우리에게 밥이 없고 옷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남과 같이 사람 노릇을 할 수가 없이 만들어 놓은 것은 곧 종래의 이야기 文學이 우리의 밝은 생의 血液을 말리고 끊은 생의 感情을 죽인 까닭이다.⁵⁴⁾

“밥이 없고 옷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가 없고 사람 노릇할 수가 없는” 세상은 日帝 治下의 조국 현실임이 분명하다. 이 진술은 비록 그것이 우연적인 표현이라 할지라도 당대 조국의 암담한 상황을 그가 인식하고 있었음을

53) Walt Whitman, op. cit p.472

54) 金石松, 「文學과 實生活의 關係를 論하여 朝鮮 新文學建設의 急務를 提唱함」 『東亞日報』 1920. 4. 23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石松은 적극적으로 日帝와 싸우려는 자세를 취하기 보다는 現實로부터 도피하여 文化라는 의장으로 자신을 감추려하고 있다. 그의 진술을 따를 것 같으면, 조국 상실은 非感情的인 文學(유교 이념으로 대표되는 조선적 질서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을까)에 연유하는 것이며, 따라서 과거의 문학을 버리고 새로운 문학(生の 감정을 표현한 문학)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조국의 독립은 자연스럽게 성취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여기에 이르러 우리는 石松의 民主文藝論이 마치 國民文學派의 그것처럼 脫現實, 文化指向, 혹은 文化에의 도피로 귀결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가 民主文藝論에서 오직 전통과 인습에 대한 개혁만을 부르짖었던 것도 이 까닭이다.

그의 散文 그 어느 것에서도 우리가 조국에 대한 이 이상의 어떤 언급, 國民的 자각이나 민족 의식을 일깨워주는 표현을 발견해 낼 수 없었던 것은 슬픈 일이다. 그것은 문학이 항상 현실적 삶에만 관심을 지녀야 된다는 뜻에서가 아니라, 그가 민주 이념을 文學論으로 들고 나왔던 이유로 인해서다 現實과 유리된 민주 이념이야말로 공소한 것이 아니겠는가, 한편 그가 조국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발언할 수 없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의 世界主義 理想에 있었던 것 같다. 金容稷 教授의 지적처럼⁵⁵⁾ 그의 世界主義는 휘트먼에게서 영향받은 바 컸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휘트먼의 世界主義가 美合衆國의 자부심 및 國民的 영광이라는 배경에서 성립되었던 것을 간과할 수 없다. 무한한 가능성과 낙관주의 및 영원한 진보의 나라로 기대되었던 美合衆國의 國民詩人 휘트먼이 지닌 이상을 제국주의 압제하에 놓인 식민지 시인 石松이 따르면 했던 것 부더가 오산이었다. 독립과 민족국가 건설이 급선무인 식민지 상황에서 어떻게 世界主義 이상이 美化될 수 있다는 말인가, 世界主義가 強大國의 이데올로기로 이용되고 있음을 간파하고 있는 우리는, 植民地 詩人 石松의 世界主義 이념에서, 그의 脫現實의 文化도피주의 및 관념적 文學論을 다시 한번 실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石松의 두세편 작품에 발견되는 민족 의식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예컨대 「죽음의 美」에서 그가 아일랜드 독립을 성원했던 것은 아마

55) 金容稷, 『韓國現代詩研究』, 一志社, p.78

도 간접적인 의미에서 조국의 현실에 대한 寓喩的 표현이었던 것으로 보이며 <햇빛 못 보는 사람들>, <러시아 빵과 고무신>등 두 작품은 소박하나마 당대의 어두운 상황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아침 해가 고우나
저녁에 달이 밝으나
도무지 상관이란 없네
차라리 해와 달을 따다가
太平洋에 영장이나 할까)」

나는 언제든지 듣는다.
이와같은 沈痛한 절규를
은 人類의 입으로부터
더우기 심한 것은
朝鮮人 하나의 입으로부터

오, 친구여 햇빛 못보는
世上에 阻喞 받은 친구들이여
우리는 차차 어찌할거나
해와 달을 깨쳐 버릴까
해와 달을 새로 만들까.

<햇빛 못 보는 사람들>

그러나 이들 작품은 본능적인 민족감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民主 理念의 자각 있는 실천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다. 작품의 양이 극히 적다는 점 (두세편), 이 정도의 민족 의식 표현은 양해될 수 있었던 정치적 상황이라는 점, 내용 자체가 저항적이라기 보다는 感傷的 슬픔이라는 점, 등이 그러하다. 따라서 石松의 文學은 두어편 현실에 관심을 보인 작품이 있다 하더라도 본질적인 면에선 脫現實, 文化的 도피주의를 지향했다고 보는 견해가 타당할 것이다.

5. 結 語

石松의 文學론은 한마디로 감정 옹호와 민주 이념의 제시에 토대를 두었다. 그러나 더욱 간단히 요약한다면 그것은 소박한 낭만주의 文學론의 표현이었던 것 같다. 그의 감정 옹호론은 世界의 實體 및 人間의 본질을 감정

이외엔 그 아무것도 아니라고 보는 점에서 편견에 빠진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견해는 같은 낭만주의 시인 岸曙의 그것처럼 文學을 生物學的 次元——生의 本能 表現——으로 끌어내릴 우려를 지닌다. 그러나 合理的 思考 대신 直觀的 감정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태도는 낭만주의 方法論과 부합된다고 하겠다. 石松은 朝鮮의 엄정한 합리주의적 질서 체계에 대신해서 보다 有機的인 생명의 세계, 즉 파토스의 논리를 제시한다. 이러한 의도가 소박하게 감정 옹호론으로 표현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民主文藝論 역시 낭만주의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그에게 영향을 주었던 휘트먼 역시 낭만주의 시인이었던 것을 상기하면 이러한 추리는 자연스럽다. 民衆이란 개념이 文學上 중요한 의미로 등장하였던 것은 주지하다시피 낭만주의 시대였다. 石松이 형범 속에서의 위대성을 추구했던 것도 西歐 낭만주의 시인들이 民衆 속에서 위대한 이념(High Ideal)을 찾으려 했던 것과 그대로 일치한다. 그외에도 石松의 다른 이념들 즉 전통과 인습의 파괴, 世界主義와 휴우머니즘의 옹호, 性解放, 文學의 形式的 구속으로부터 自由, 등도 모두 낭만주의 이론에 관련된 것들이다.

石松이 民主文藝를 주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世界主義와 관념적 휴우머니즘을 제창하면서 당대 어두웠던 조국의 현실을 외면했던 것은 일종의 현실 도피로 평가되어야 마땅할 것이다. 여기서 理念과 실천 상에 노정된 그의 文學的 모순이 발견된다. 그의 현실 도피는 인습과 전통의 파괴 그리고 감정 위주의 새로운 文學 건설이라는 명분으로 설명될 수 있다. 그의 이와같은 脫現實, 文化에의 퇴행은 國民的 자각과 민족의식을 일깨워야 할 시대적 요청과는 거리가 먼 것들이다.

世界主義 이상은 西歐 前期 낭만주의 운동에서 드러나는 중요한 특질의 하나이다. 그러나 낭만적 아이러니를 인식한 뒤 변질된 후기 운동에선 세계주의 대신에 民族主義 이념이 들어 앉는다. 따라서 石松의 世界主義는 초기 낭만적 기질에 머물러 있었던 것 같다. 말하자면 그것은 한상적이며, 관념적 낭만주의라 할 수 있다.